

아시아교육연구 20권 2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9, Vol. 20, No. 2, pp. 377-403.

<https://doi.org/10.15753/aje.2019.06.20.2.377>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재수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이수연(李秀娟)**

이정윤(李貞倫)***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 소재 재수학원 및 기숙학원에 재학 중인 재수생 329명을 대상으로 평가염려 완벽주의(ECPS) 및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PSPS), 정서조절곤란 척도(K-DERS), 학업소진 척도(KABI) 그리고 가외변인으로 설정한 학업스트레스 척도(SA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경험하는 재수생일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이로 인해 학업소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이 억제변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곤란이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수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각각 어떠한 경로를 통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데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학업소진,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 재수생

* 본 연구는 이정윤의 지도로 이뤄진 이수연(2015)의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재수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수정, 요약한 것임.

** 제 1저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교신저자,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개인의 성공의 기회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고자 대학에 합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하여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재수 또는 반수를 선택하곤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단순히 대학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력 지향성을 뛰어넘어 상위권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한 학벌 지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심연식, 2011). 실제로 재수생 응시자 비율은 2013년 14만 2천명, 2014년 12만 8천명, 2015년 13만 2천명으로, 전체 수능 응시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입시 실패 이후 1년 또는 그 이상을 대학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도경, 2014). 또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무려 80%가 넘는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선일보, 2015). 최근 들어서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권수진, 2014)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수경험을 대학진학을 위한 하나의 필수과정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극심해져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신효정 외, 2011). 특히 재수생은 더 이상 학생의 신분이 아닐 뿐 더러 동급생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 한 해를 다시금 공부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더불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중압감을 느끼며 학업스트레스가 가중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는 단순한 스트레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업소진을 일으키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한다.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이란 지나친 학업적 요구와 만성화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탈진을 경험하고, 학업 과제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및 자신의 학업적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것을 말한다(Schaufeli et al., 2002). Koeske와 Koeske(1991)에 따르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살, 집중력의 저하, 낮은 학업동기 및 학업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업소진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즉,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증상이나 학업중도포기와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학생들의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자영, 2010). 실제로 재수생 가운데에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수능성적을 비판하며 각종 비행이나 자살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심리적 문제들에 선행하는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수생의 학업스트레스나 학업소진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 학업소진을 살펴본 연구는 그 자체로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 역시 주로 초등학생(조성화, 2013)이나 초등 영재학생(편무경, 2012), 중학생(신효정 외, 2011), 또는 고등학생(이현아, 2011; 조한익, 이현아, 2009)으로 국한되어 있을 뿐, 재수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을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수생이라는 신분은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경우로서, 이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을뿐더러, 비록 짧은 시기이긴 하나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인도 아닌 모호한 시기에 위치하여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는 주변인의 모습을 나타낼 뿐 아니라(정성한, 김완일, 2014; 정옥분, 2003), 소외감, 외로움과 같은 내적 혼란과 갈등(박선희, 2010)을 경험하고 재수 경험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는 등 가장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에 재수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환경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들로 나뉘어 연구되어왔다. 환경적 변인으로 학업성취압력(남상필, 이지연, 장진이, 2012; 이자영, 2010; 조혜진, 이지연, 장진이, 2013),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소진(한은아 외, 2011), 학교환경(신현대, 이정기, 2008) 등이 있으며, 개인내적 변인으로 학업열의(조한익, 이현아, 2010), 스트레스 대처방식(김정현 외, 2013에서 재인용), 완벽주의(이현아, 2011; 조한익, 이현아, 2009; 편무경, 2012), 성격(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 2010; 신효정 외, 2011; Jacobs & Dodd, 2003)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인내적 특성은 학업소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어, 개인내적 특성과 학업소진과의 관계는 주목할 만하다고 보여진다.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특성 중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는 변인으로 완벽주의가 있는데, 완벽주의의 역기능적인 특성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주는 직무요구로 간주되고 있으며, 학생의 학업소진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간주되고 있다(조한익, 이현아, 2009). 이는 완벽주의의 자기비판적인 평가과정이 실패에 치우친 주의를 갖게 하거나 과도한 자기평가로 인해 소진을 쉽게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Shafran et al., 2002). 또한 개인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거나 그 자체만으로도 끊임없이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과도한 열의를 내게 하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어 쉽게 학업소진을 경험하게 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조한익, 이현아, 2010). 즉, 다방면에서 완벽함을 강요함은 과도한 수행의 강화로 이어져 성인 뿐 아니라 학업 장면의 청소년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업소진을 겪는 것은 아니다. 적응적인 측면의 완벽주의자는 수행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만 이로 인해 자기비하나 인정욕구 좌절로 인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며, 비완벽주의자들에 비해 학업장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이현아, 2011; Rice & Dellwo, 2002). 이처럼 사람들이 갖는 완벽주의는 적응적이면서 동시에 부적응적인, 양가적 측면 모두를 포함한다(김윤희, 서수균, 2008). 이에 완벽주의를 적응적이면서도 부

적응적인 이차원적 개념으로 살펴본 Blankstein과 Dunkley(2002)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을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로 명칭 하였다. 이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지만 자신의 능력간의 불일치로 인해 자기비난, 습관적 염려, 심리적 고통을 낳게 되는 것을 말한다.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적 신념의 보유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기에, 스트레스를 확대 해석하여 지각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김민선, 서영석, 2009). 또한 자신이 실패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나타낸다(김윤희, 서수균, 2008). 선행연구들에서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건설적 사고의 결핍(Flett, Russo, & Hewitt, 1994), 대인관계에서의 사회불안 및 알코올 남용문제(Dunkley & Blankstein, 2000; Hewitt & Flett, 1991), 스트레스, 걱정 등(김현정, 손정락, 2006)의 심리적 문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완벽주의의 적응적 개념으로 간주되는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는 개인이 높은 기준을 설정하지만 적절하고 높은 정서조절 능력을 지니고 있어 유연하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지 않은 특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자기주도적인 성격패턴을 나타낼 뿐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고 적당한 기준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를 성취하고자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을 하게 되어 그 과정에서 만족감을 쉽게 느낀다(Campbell & Paula, 2002). 또한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는 높은 자존감과 긍정적 정서 및 학업적 적응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김현정, 손정락, 2006; Frost, Heimberg, Holt, Mattia, & Neubauer, 1993),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개인 기준은 낮은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오유경, 김은정, 2014; Rice, Lopez, & Vergara, 2005) 및 높은 성실성과 인내력(오유경, 김은정, 2014; Stumpf & Parker, 2000)과 정적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완벽주의의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Blankstein과 Dunkley(2002)는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간의 복잡한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완벽주의와 심리적 고통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탐색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정, 손정락, 2007). 직무요구-자원 모형(Job Demands-Resources Model)에 따르면,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의 활용이 직무요구로 인한 심리적 소진을 낮추고 목표달성을 위한 긍정적 기여를 함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시간적 압박과 지나친 업무량은 심리적·육체적 피로를 축적시켜 정서적 고갈을 겪게 하는데, 이때 개인이 사회적 지지나 유연성 있는 대처능력과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직무요구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낮추고 적응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한다(권성현, 2008).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원이 소진을 예방하는 예측변인으로 제기되면서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이자영, 2010).

본 연구에서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소진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자원으로 정서조절능력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조절이란 정서의 통제뿐만 아니라 정서 자극으로부터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정서조절에 실패할 때 일시적 불안이나 우울

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강화와 행동억제 및 행동과잉을 일으킨다(김정화, 2011;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능력은 스트레스로 야기되는 감정들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서지능의 하위유형 중 하나인 정서조절이 잘 기능할수록 개인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된다(한태영, 2005). Garnefski와 Kraaij(2007)는 수년간의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결과,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한 이후에 정서조절이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보호하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윤정임, 정남운, 2009). 또한 정서조절방략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부정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해소시킬 경우 소진의 예방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선, 2014; 하창순, 박주하, 2011). 그밖에 교사의 정서조절능력과 소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자주 사용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직무 만족이 크며, 소진 현상이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박선미, 2013).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로 미뤄볼 때 정서조절은 소진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서조절능력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Cicchetti, Ackernman, & Izard, 1995), 이러한 정서조절 능력이 결핍되거나 반복되어 정서조절의 실패가 일어나게 됨으로써 정서조절곤란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정서조절곤란은 개인내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악화시키고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데(최은희, 최성진, 2009), 예로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시켜 자해(Klonsky, 2009), 양극성장애(Dickstein, & Leibenluft, 2006), 우울 및 문제 행동(Silk, Steinberg, & Morris, 2003)등을 야기시킨다. 즉, 정서조절곤란은 심리적 문제들의 기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박지선, 2013).

이와 같은 정서조절은 특히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요인으로(이원화, 이지영, 2011), 본격적인 정서관리와 유지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간주된다(홍주현, 심은정 2013). 이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외부로부터 많은 도전과 자극을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홍주현, 심은정, 2013). 또한 학업적 상황에서 정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요인이기에, 능동적인 정서조절능력을 보유하고 정서조절을 위해 노력을 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도움을 준다(유지현, 이숙정, 2012).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학생들에게 정서조절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하고 안정감을 겪기도 하는 등(이원화, 이지영, 2011)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재수생의 정서조절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완벽주의는 정서조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과 더불어 완벽하지 않다는 평을 타인에게 듣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기에서 소소한 비판에도 방어적인 반응을 나타내고(김정화, 신희천, 2013),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쉽게 무시한다(김정화, 신희천, 2013; Rice, Lopez, & Vergara, 2005; Rice & Mirzadeh, 2000). 이처럼 실패실수에 과도한 두려움으로 동기화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연은지, 김향

숙, 2013; Blankstein & Dunkley, 2002). 또한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무기력하거나 회피적인 방식을 사용하고(김정은, 손정락, 2012; Blankstein & Dunkley, 2002) 지나치게 정서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문제 해결을 방해해 이는 곧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다(김민선, 서영석, 2009).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자의 심리적인 고통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민선, 서영석, 2009; Aldea & Rice, 2006). 반면, 적응적인 측면의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들은 평가염려 완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지만, 더 나은 정서조절전략, 예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지 않음을 나타낸 바 있다(Aldea & Rice, 2006; Blankstein & Dunkley, 2002). 선행연구에서도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이 부적상관을 나타내며(김정화, 2011),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의 하위 유형인 자기지향 완벽주의 집단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박소영,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수생의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이라 여겨지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에 따라, 정서조절곤란과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일반적으로 학업소진은 지나친 학업적 요구에 따른 만성화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고(Schaufeli et al., 2002), 학업소진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Zhang, Gan & Cham, 2007; Lee & Jo, 2013)에서도 학업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기에,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편향된 추정치를 산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가외 변인으로 인해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해질 수 있다(서영석, 2010; Kenny et al.,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두었기에, 학업스트레스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학업소진에 가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순수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 학업소진 사이에 유의한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재수생의 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 그리고 학업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서울지역의 강북 D학원과 경기 소재 C 기숙학원 및 양평 C 기숙학원에 거주하며, 서면동의서에 동의한 만 19세 이상의 남녀 재수생 4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4월초부터 2015년 5월 중순까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전에 각 학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설문지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였으며, 이 선생님들에 의해 아침 조회시간이나 쉬는 시간을 통해 배포가 이루어졌다. 설문은 약 3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수된 357개의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빠트린 문항이 있는 28부를 제외한 329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269명(81.8%), 여자 60명(18.2%)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9.54세(SD=1.39)였다. 계열을 살펴보면 이과가 170명(51.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문과는 123명(37.4%), 예체능은 36명(10.9%)으로 나타났으며, 재수경험의 횟수는 1회가 293명(89.1%), 2회가 32명(9.7%), 3회가 1명(0.3%), 4회 이상이 3명(0.9%),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완벽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에 해당하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Dunkley와 Blankstein(2002)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는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으로 구성하고,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는 HMPS의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FMPS의 ‘개인기준’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ewit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가운데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하위척도, 그리고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가운데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하위척도, 이 세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기연(1993)이 HMPS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를 변안한 하위척도, 그리고 현진원(1992)이 FMPS의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을 변안한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척도의 15문항 가운데, 전문가

의 도움을 받아 내용이 중복되거나 완벽주의를 측정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3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을 사용하였고, 7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수에 대한 염려'와 '수행에 대한 의심' 하위척도는 각각 9문항과 4문항,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72, 실수에 대한 염려가 .85, 수행에 대한 의심이 .69, 그리고 평가염려 완벽주의 전체가 .68로 나타났다.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척도 가운데 '자기 지향 완벽주의' 하위척도, 그리고 Frost 등(1990)이 개발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가운데 '개인의 기준', 이 두 가지 요인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한기연(1993)이 HMPS의 하위척도인 '자기 지향 완벽주의'를 변안한 척도와 현진원(1992)이 HMPS의 하위척도인 '개인의 기준'을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 지향 완벽주의' (예: 나의 목표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지는 것이다.) 차원의 15문항 가운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5문항을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개인기준' 하위척도는 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가 .70, 개인기준이 .77, 그리고 개인 기준 완벽주의 전체가 .75로 나타났다.

2) 학업소진 척도

학업소진척도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2009)이 개발 및 타당화하고, 이자영(2010)이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학업소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자영(2010)의 한국형 학업소진척도는 2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7문항을 학원이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재학생들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단어를 일부 수정하였다 (17번 수정 문항: 나는 학원에 다닌 이후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덜 느끼게 되었다). 이자영(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 학업소진의 각각의 하위유형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탈진 .87, 무능감 .94, 반감 .91, 냉담 .85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계수는 탈진이 .85, 무능감이 .82, 반감이 .89, 냉담이 .85, 학업소진이 .83으로 나타났다.

3) 정서조절곤란 척도

Gratz와 Roemer(2004)가 개발한 정서조절곤란 척도(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DERS)를 박지선(2013)이 변안한 정서조절척도 질문지(박지선, 2013)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비수용성, 자각, 전략, 목표, 충동, 명확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6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각에 해당되는 17번 문항과 34번 문항이 다른 문항과는 달리 6개의 요인에 부하되지 않아 제거하였다. 이는 박지선(2013)의 정서조절곤란척도인 DERS를 한국 청소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본 연구에서 ‘자각’요인에 해당되는 17번, 34번 문항이 제거된 바 있고, 조용래(2007)의 연구에서도 34번 문항이 제거된 바 있다. 따라서 정서조절곤란척도는 총 34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낸다. 박지선(2013)의 연구에서는 한국판 청소년용 DERS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가 .9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내적합치도 계수는 비수용이 .89, 충동이 .85, 자각이 .80, 전략이 .85, 목표가 .76, 명확성이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서조절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비수용성이 .89, 자각이 .79, 전략이 .88, 목표가 .74, 충동이 .74, 명확성이 .84, 그리고 전체 정서조절곤란은 .78로 나타났다.

4) 학업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소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학업스트레스를 공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외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학업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박병기, 박선미(2012)의 학업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5문항, 6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성적’, ‘수업’, ‘공부’로 나누어져있고, 세부 하위요인으로 ‘부모’, ‘교사’, ‘자기’로 구성되어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를 받는 세 개의 영역 가운데 ‘성적’만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공부’와 ‘수업’ 영역의 문항들은 현재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적합하며, 입시 성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스트레스가 재수생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성적’과 관련된 학업스트레스 척도는 총 15문항, 6점 Likert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유형들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는 성적-부모가 .80, 성적-교사가 .82, 성적-자기가 .87로 나타났다(박병기, 박선미, 2012).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업스트레스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성적-부모가 .82, 성적-교사가 .86, 성적-자기가 .86, 전체 학업스트레스가 .91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과 AMOS 21.0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기초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 및 매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재수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측정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재수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nderson &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2단계 접근법 즉, 측정변수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간 구조적 관계의 검토를 위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학업스트레스를 공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다섯째,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각 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반면, 재수생의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반감, 냉담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탈진, 무능감과는 $p < .05$ 수준에서 낮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정서조절곤란과 $p < .01$ 수준에서 정적 관련이 있었으며,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자각, 목표, 비수용성, 그리고 충동성과 $p < .01$ 수준에서 정적 관련이 있었다. 셋째, 앞서 제시한 재수생의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들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들 중 자각만을 제외하고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그 외에도 공변인으로 설정된 학업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은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학업소진,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자각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들과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평가염려 완벽주의	1	-																	
	2	.40**	-																
	3	.25**	.59**	-															
개인기준 완벽주의	4	.46**	.38**	.27**	-														
	5	.44**	.44**	.15**	.60**	-													
정서조절 곤란	6	.12**	.29**	.27**	.08	.02	-												
	7	.16**	-.02	-.04	.26**	.26**	-.19**	-											
	8	.18**	.48**	.42**	.11*	.10	.51**	-.10	-										
	9	.26**	.38**	.34**	.21**	.22**	.30**	.24*	.55**	-									
	10	.20**	.43**	.38**	.19**	.19**	.57**	-.01	.62**	.38**	-								
학업소진	11	.19**	.41**	.37**	.16**	.16**	.47**	.06	.76**	.55**	.60**	-							
	12	.19**	.26**	.30**	.05	-.04	.24**	-.02	.31**	.25	.17**	.33**	-						
	13	.11*	.36**	.32**	.06	.00	.49**	-.10	.53**	.27**	.41**	.53**	.51**	-					
	14	.20**	.43**	.35**	.11*	.13*	.35**	-.00	.45**	.25**	.37**	.49**	.62**	.66**	-				
	15	.22**	.40**	.48**	.19*	.06	.31**	-.03	.40**	.27**	.37**	.35**	.45**	.52**	.53**	-			
학업 스트레스	16	.38**	.47**	.41**	.22**	.24**	.25**	-.03	.37**	.31**	.31**	.31**	.31**	.36**	.39	.41**	-		
	17	.29**	.49**	.41**	.21**	.15**	.30**	-.05	.53**	.32	.43**	.43**	.20**	.43**	.48**	.62**	.60**	-	
	18	.38**	.45**	.43**	.35**	.28**	.11**	.04	.33**	.39**	.25**	.28**	.34**	.19**	.29**	.48**	.62**	.48**	-
평균	4.20	2.89	3.09	4.42	3.29	1.47	2.43	1.60	2.21	1.47	1.65	3.13	2.19	2.56	2.85	3.65	3.21	4.18	
표준편차	.77	.77	.76	.75	.69	1.00	.70	.95	.74	.96	.83	1.0	.91	.92	.84	1.12	1.21	1.12	
왜도	-.37	.02	.18	-.23	-.02	.39	-.13	.14	-.14	.20	.37	-.08	.66	.49	.25	-.17	.12	-.50	
첨도	3.70	.18	.10	2.89	.51	-.26	.42	-.45	-.29	-.61	-.31	-.48	.05	.28	.17	-.71	-.83	-.41	

주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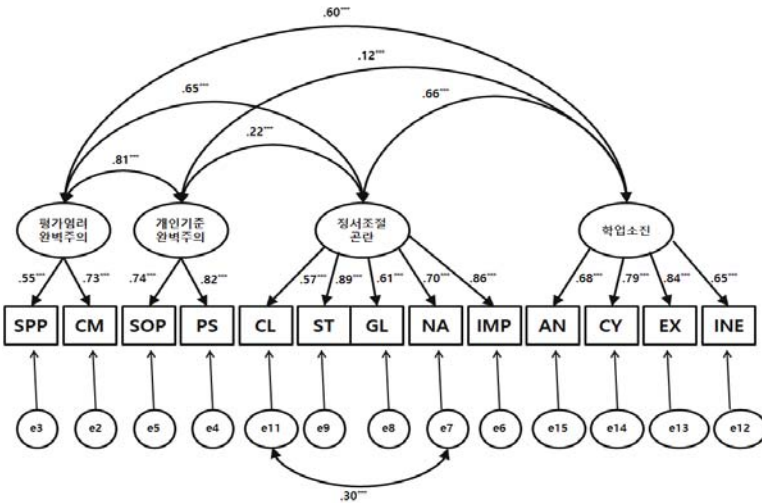
주 1.사회부과 완벽주의, 2.실수에 대한 염려, 3.수행에 대한 의심, 4.자기지향 완벽주의, 5.개인기준, 6.명확성, 7.자각, 8.전략, 9.목표, 10.비수용성 11.충동, 12.반감, 13.냉담, 14.탈진, 15.무능감, 16.성적-부모, 17. 성적-교사, 18. 성적-자기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요인들의 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chi^2 = 191.753(df=58, p<.001)$, 적합도 지수는 CFI=.931, TLI=.907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084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다. 즉, 측정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각 측정변수에 대한 해당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각 측정변수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191.753	58	.907	.931	.084 (.071~ .097)



[그림 1] 구조모형(표기된 회귀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임.)

3. 구조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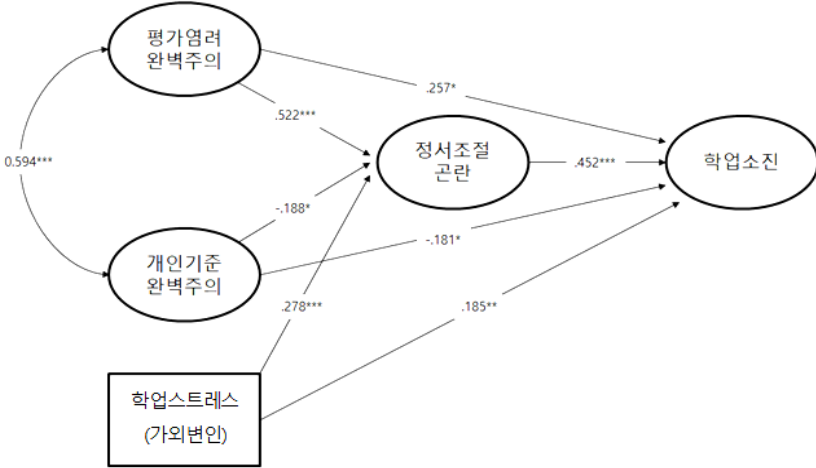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를 공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이외의 가외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에서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및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정서조절곤란과 학업소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정서조절곤란 또한 학업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가염려 완벽주의 및 개인기준 완벽주의에서 학업소진으로 가는 경로와, 평가염려 완벽주의 및 개인기준 완벽주의에서 정서조절곤란으로 가는 경로,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에서 학업소진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재수생일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이로 인해 학업소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지니는 재수생일수록 정서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향상된 정서조절능력은 학업소진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공변인으로 설정한 학업스트레스가 정서조절곤란과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평가염려완벽주의	→ 정서조절곤란	.982***	.197	.522
개인기준완벽주의	→ 정서조절곤란	-.248*	.100	-.188
정서조절곤란	→ 학업소진	.360***	.061	.452
평가염려완벽주의	→ 학업소진	.385*	.153	.257
개인기준완벽주의	→ 학업소진	-.190*	.080	-.181
평가염려완벽주의	↔ 개인기준완벽주의	.116***	.020	.594
학업스트레스 (가외변인)	→ 정서조절곤란	.067***	.016	.278
학업스트레스 (가외변인)	→ 학업소진	.035**	.013	.185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또한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chi^2 = 259.756(df=58, p<.001)$, 적합도 지수는 CFI=.911, TLI=.882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고 RMSEA=.092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RMSEA의 경우 그 값의 하한선은 0이나, 상한선은 제한되지 않아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대략적인 기준으로는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를,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RMSEA<.10이면 보통의 적합도를,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를 각각 나타냄으로(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본 연구에서는 RMSEA=.092로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정서조절, 학업소진 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연구모형	259.756	69	.882	.911	.092(.080~ .104)

4. 매개효과 검증

연구의 개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Chan(2007)이 제안한 팬텀변수를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Shrout & Boiger, 2002) 사용했으며,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때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가 0.353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 편차 교정 하한과 상한 사이(.183~.674)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또한, 재수생의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로계수가 $-.089(-.194 \sim -.006)$ 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정서조절곤란이 재수생의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냄이 확인되었다.

<표 5> 매개효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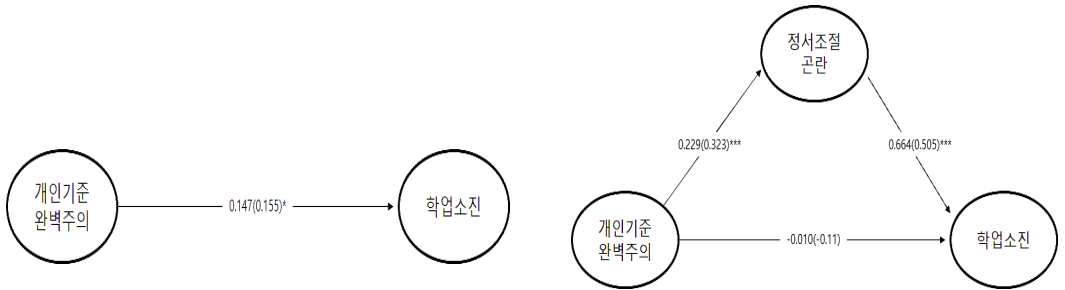
경로	추정값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평가염려완벽주의→정서조절곤란→학업소진	.353	.183	.674
개인기준완벽주의→정서조절곤란→학업소진	-.089	-.194	-.006

5. 억제효과 검증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정서조절곤란이 억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였다. 억제효과를 검증하고자 함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beta = -.18, p < .05$)와 측정모형에서의 두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r = .12, p < .001$)가 정반대의 부호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변수 간 단순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개모형 검증 시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거나, 정반대의 관계 방향이 나타날 때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있음을 시사한다(김민선, 서영석, 2009;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특히,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의 부호가 정반대일 경우 억제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커지며, 이 경우 매개변인이 아닌 억제변인으로 간주된다(서영석, 2010; Cohen et al., 2003;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Shrout & Bolger, 200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정서조절곤란의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독립변인(개인기준 완벽주의)이 종속변인(학업소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에 제 3의 변인(정서조절곤란)을 투입했을 때의 상관을 살펴보았는데,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

조절곤란을 투입하기 이전의 직접효과는 $\beta=.15(p<.05)$ 이었는데,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한 이후의 직접효과는 $\beta=-.01$ 과 같이 부호가 정반대로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의 억제효과를 시사한다(서영석, 2010; Cohen et al., 2003; 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Shrout & Bolger, 2002).



[그림 3] 정서조절곤란의 억제효과 검증. * $p<.05$,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재수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재수생의 평가염려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 중 자각을 제외한 모든 요인 그리고 학업소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성과 정서조절곤란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들(김민선, 서영석, 2009; 김정화, 2011; Aldea & Rice, 2006; Burns, 1980)과 학업소진과 평가염려완벽주의 특성이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정화, 신희천, 2013; 조한익, 이현아, 2009; 심혜원 1995), 그리고 정서조절곤란을 경험할수록 학업소진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이은선, 2014; 하창순, 박주하 2011; 윤정임, 정남운, 2009; Williams & Wiebe, 2000; Weiss & Weiss, 1999)과도 일치한다. 한편, 재수생의 개인기준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 학업소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거나 매우 낮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완벽주의의 적응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아직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심리적으로 적응적인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현희, 김창대, 2011; Ashby & Rice, 2002). 실제로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일부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정서와는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정적 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가 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

정, 손정락, 2006; 이미화, 류진혜, 2002; 한기연, 1993; 홍석인, 현명호, 2007;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5; Flett, Hewitt, Blankstein, & O'Brien, 1991). 이에 향후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 같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적응적인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공변인으로 설정된 학업스트레스는 정서조절곤란, 학업소진과도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진현상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뒤따라오는 반응이며(이상민, 2012) 스트레스 사건만으로 개인에게 위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 대처하는 방법이나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신현숙, 구분용, 2001; 유계숙, 신동우, 2013)와도 일치한다.

둘째, 구조모형 검증결과,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과 동시에,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부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즉,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성이 높게 나타날수록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나 타인의 욕구가 개인의 욕구보다 더 중요해 자신의 정서를 도외시하게 되어, 정서에 대한 수용 및 명확한 이해의 어려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충동성을 다스릴 수 있는 전략의 부족으로 목표 도달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음도 시사한다. 이러한 정서조절의 어려움은 학업으로 인한 신체적 에너지 고갈, 학업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의심스러움, 반감을 경험하는 학업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에 개인기준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기준 완벽주의자들이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뛰어나고(Dunkley & Blankstein, 2000) 자신이 설정해 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좌절하기보다 더 나은 수행을 하도록 동기화 되어 학업소진의 위험이 현저히 낮다(편무경, 2012)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통계적 허구인지, 아니면 우연한 표집의 결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억제효과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서조절곤란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독립변인(개인기준 완벽주의)이 종속변인(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반대의 부호가 나타나 정서조절곤란이 억제효과를 지닐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한 변인이 억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진이, 2016). 즉, 개인기준 완벽주의 특성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조절곤란이 축소시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되어 억제효과의 함의를 도출할만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렵기에 정서조절곤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해석을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서조절곤란의 억제효과가 추후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성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변인으로 작용하며, 개인기준 완벽주의 특성이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정서조절곤란이 억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의 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학업소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수생을 상담할 때, 먼저

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적응적 측면과 부적응적 측면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살펴보고, 완벽주의 성향이 어떤 경로를 통해 학업소진에 영향을 주는지 학생으로 하여금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 다. 예를 들어 타인의 비판이나 실수에 대한 염려와 같은 습관적인 염려로 인하여 학업소진이 발생 한 것인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실제 능력과의 간극을 경험하게 되어 자기 비난이나 자책을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에 내재되어 있는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를 보다 적응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평가염려 완벽주의 특성을 지닌 재수생들이 갈등을 경험하게 한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게 하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전략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겠 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재수생 양산의 문제가 지속되어 재수 또는 재수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수는 교육제도 밖의 문제로 여겨지거나 재수생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구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이전의 학업소진 연구들은 주로 초·중·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었는데, 실제 재수생들은 반복되는 입시 준비로 인해 극심한 학업스트레스를 겪고 있기에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학업소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학술적 연구나 사회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받고 있는 재수생을 대상으로 학문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수생들의 적응적·부적응적인 측면의 완벽주의, 학업소진, 정서조절곤란 과 같은 심리·정서 및 성격적인 측면에 대해 살펴본 점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연구들에 서 재수생과 같은 특정 대상들에게도 위의 특성들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완벽주의의 부적응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를 두 가지 다른 양상, 즉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완벽주의 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로 학업소진을 낮추 거나 증가시키는 개인의 자원을 탐색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서(이자영, 2010), 과다한 학업요구량 으로 인해 지쳐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정서조절이 학업소진현상을 감소시킬만한 개인적 자원 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재수생의 심리·정서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에 재수생 대상의 상담과정에서 재수경험을 하며 겪는 학업적 요구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평 가하고, 평소 어떠한 정서조절전략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탐색하여 재수생에게 도움이 될 정서조절 전략들을 습득하고 훈련시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재수생 대상의 학업소진의 감소 혹은 예방 관련 집단상담을 운영할 때 정서조절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서조절능 력의 강화와 정서조절전략의 습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부분 경기도 지역의 기숙학원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타 지역 및 다른 거주 형태의 재수생들 및 여학생들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양

한 지역 및 거주형태의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기에 학생들이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나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지각하고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좀 더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면접 혹은 질적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재수를 선택하게 된 학생을 구분하지 않아, 이에 따른 재수생의 학업소진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간과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재수를 하게 된 것이 본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측정하여 이에 따른 요인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완벽주의를 적응적인 측면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부적응적인 측면의 평가염려 완벽주의로 살펴봄에 있어, 평가염려 완벽주의 척도 내의 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이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 내의 요인들과 상관이 높아 이를 제거한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들 간의 문항이 다소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이전 연구에서 완벽주의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FMPS와 HMPS 척도가 완벽주의의 구성개념을 확장시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는 했지만, 완벽주의의 핵심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간과했을 뿐 아니라, 완벽주의의 핵심적 특성과 완벽주의와 관련된 특징을 구분 짓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 및 해석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김윤희, 서수균, 2008; Rheume et al., 1995). 이에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의 수정·보완 및 적응적·부적응적 완벽주의 척도의 개발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보통의 적합도를 나타내어(TLI=.882, RMSEA=.092)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재수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 정서조절곤란, 학업소진 간의 구조적인 관계가 충분히 적절하지는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개인기준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과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하위요인들 간에 유사한 문항들로 중첩되어있을 가능성과,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 내의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여러 연구들에서 상반된 연구결과들, 예로 적응적인 것과 부적응적인 양상 모두가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김현희, 김창대, 2011). 이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개인기준 완벽주의 척도가 나타내고자 하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양상을 보다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문항들로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서조절 모델의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정서조절곤란의 하위요인인 명확성과 비수용성의 오차 간 상관을 주어 분석을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의 분석효과를 해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현(2008). 직무특성요인과 개인의 완벽주의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공관리학보**, 22(4), 307-328.
- 권수진(2014년 3월 14일). “재수 권하는 사회”. **한양뉴스**.
http://www.hanyang.ac.kr/user/WeeklyUserList.action?command=print_view&work=pdf&weeklyId=2014-03-2-8에서 검색
- 김민선, 서영석(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성모, 정경화(2015년 8월 24일). “再修 부르는 '물수능'... 강남 재수생 비율 83%”.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4/2015082400073.html에서 검색
- 김민선, 서영석(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윤희, 서수균(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와 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정은, 손정락(2012). 수용전념치료가 평가염려 완벽주의적 대학생들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경험 회피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3), 749-771.
- 김정화(2011).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김정화, 신희천(2013). 완벽주의가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893-909.
- 김정현, 마연연, 고민선, 정인경(2013). 중국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학업소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5(2), 129-146.
- 김현정, 손정락(2006).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345-361.
- 김현희, 김창대(2011). 완벽주의자 하위 유형 분류 연구-평가염려, 개인기준 완벽주의자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1), 373-391.
- 남상필, 이지연, 장진이(2012). 학업성취 압력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감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3), 219-230.

- 박병기, 박선미(2012).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2), 563-585.
- 박선미(2013).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소진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1), 21-32.
- 박선희(2010). 집단미술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 스트레스 완화와 또래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0(1), 25-51.
- 박소영(2002). 완벽주의와 정서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귀인양식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박일경, 이상민, 최보영, 이자영(2010). 5 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81-93.
- 박지선(2013).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측정- DERS의 심리측정적 속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727-746.
- 서영석(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신현대, 이정기(2008). 학교생활만족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3-101.
- 신효정, 김보영, 이민영, 노현경, 김근화, 이상민(2011). 중학생의 정신건강과 학업소진의 단기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2), 133-152.
- 신현숙, 구분용(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지**, 9(1), 189-225.
- 심연식(2011). 대입재수생의 학습 성과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재수학원 종합반 학원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심혜원(1994). 완벽주의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연은지, 김향숙(2013). 중학생의 완벽주의가 걱정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2), 263-281.
- 오유경, 김은정(2014).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4), 1167-1187.
- 유계숙, 신동우(2013). 대학생의 학업-취업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및 취업스트레스 간의 관련성에 관한연구. **상담학연구**, 14(6), 3849-3869.
- 유지현, 이숙정(2012). 학업적 정서조절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6(4), 1137-1159.
- 윤정임, 정남운(2009). 낙관성, 인지적 정서조절 및 상담자 소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1), 49-68.
- 이도경(2014년 9월 15일). “수능 응시 재수생 4년 만에 늘어… 수준별 수능 단계 폐지 영향”.

- 국민일보.[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136&code=11131300](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136&code=11131300&cp=nv)
&cp=nv에서 검색
- 이미화, 류진혜(2002). 완벽주의 성향의 순기능과 역기능: 성취목표,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우울과 관련하여. **청소년학연구**, 9(3), 293-316.
- 이상민. (2012).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소진 진행과정 및 경로분석**. 집문당: 아산재단연구총서 제 331집.
- 이영복, 이상민, 이자영(2009). 한국형 학업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5(3), 59-78.
- 이원화, 이지영(2011). 청소년의 정서조절곤란 수준과 정서조절방략의 사용: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교 연구. **인간이해**, 32(2), 195-212.
- 이은선(2014). 음악치료사의 성격특성과 정서조절방략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0(2), 241-261.
- 이자영(2010). 과도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성취목표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1(4), 1551-1565.
- 이지영, 권석만(2006). 정서조절과 정신병리의 관계: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3), 461-493.
- 이현아(2011). 완벽주의가 학업열의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장진이(2016).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경험회피, 정서조절 어려움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7(2), 121-139.
- 정성한, 김완일(2014). 재수생의 외상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반추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 127-147.
- 정옥분(2003).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조성화(2013). 초등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학업소진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조용래(2007). 정서조절곤란의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6(4), 1015-1038.
- 조한익, 이현아(2009).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1), 1-23.
- 조한익, 이현아(2010).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및 학업열의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취목표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 131-154.
- 조혜진, 이지연, 장진이(2013). 고등학생의 과중한 학업요구와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3), 1605-1621.
- 최은희, 최성진(2009). 정신과 환자의 미성숙한 방어기제와 정서조절곤란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8(2), 171-171.

- 편무경(2012). 초등영재학생의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메타-인지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하창순, 박주하(2011). 정서표현갈등과 대인불안 및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 **인간연구**, 22, 173-197.
- 한기연(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한은아, 김보영, 이상민, 신효정(2011). 부모양육 태도와 부모소진 및 자녀 학업소진의 관계. **한국교육학연구**, 17(1), 270-293.
- 한태영(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2), 177-197.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 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석인, 현명호(2007). 완벽주의와 우울의 관계에서 우울반응양식의 효과검증.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007(1), 180-181.
- 홍주현, 심은정(2013).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195-21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Aldea, M. A., & Rice, K. G. (2006). The role of emotional dysregulation i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498-510.
- Ashby, J. S., & Rice, K. G. (2002). Perfectionism, dysfunct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2), 197-203.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85-315).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 Campbell, J. D. & Paula, A. D. (2002). Self-esteem and persistence in the face of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3), 711.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2), 326-346.
- Cicchetti, D., Ackerman, B. P., & Izard, C. E. (1995).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in

-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1), 1-10.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S.(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3rd ed)*. Mahwah, NJ: Erlbaum.
- Dickstein, D. P., & Leibenluft, E. (2006).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oundaries between normalcy and bipolar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4), 1105-1131.
- Dunkley, D. M., & Blankstein, K. R. (2000). Self-critical perfectionism, coping, hassles, and current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713-730.
-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 O'Brien, S. (1991). Perfectionism and learned resourcefulnes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2(1), 61-68.
- Flett, G. L., Russo, F., & Hewitt, P. L.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constructive thinking as a coping response.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Behaviour Therapy*, 12, 163-179.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M.,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5),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Garnefski, N., & Kraaij, V. (2007). Th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psychometric features and prospective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and anxiety in adults.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141-149.
- Gratz, K. L., & Roemer, L. (2004).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 factor structure,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6(1), 41-54.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Jacobs, S. R., & Dodd, D. (2003). Student burnout as a function of personality, social support, and workload.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4(3), 291-303.
- Kenny, D. a., Kashy, D. A., & Bolger, N. (1998). Data analysis in social psychology. In D. T.

- Gilbert, S. T.,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pp 233–26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lonsky, E. D. (2009). The functions of self-injury in young adults who cut themselves: Clarifying the evidence for affect-regulation. *Psychiatry Research, 166*(23), 260–268.
- Koeske, G. F., & Koeske, R. D. (1991). Student burnout as a mediator of the stress outcome relationship.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32*(4), 415–431.
- Lee, H. A., & Jo, H. I. (2013). The relation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burnout: the mediating effects of motives and goal process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5*(3), 575–601.
- MacKinnon, D. P., Krull, J. L., & Lockwood, C. M. (2000). Equivalence of the mediation, confounding and suppression effect. *Prevention Science, 1*(4), 173–181.
- Rhéaume, J., Freeston, M. H., Dugas, M. J., Letarte, H., & Ladouceur, R. (1995). Perfectionism,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7), 785–794.
- Rice, K. G., & Mirzadeh, S. A. (2000). Perfectionism, attachment,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2), 238–250.
- Rice, K. G., & Dellwo, J. P. (2002). Perfectionism and self-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0*(2), 188–196.
-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4), 580–605.
- Schaufeli, W. B., Martez, I. M., Marques Pinto, A.,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7), 773–791.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s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tumpf, H., & Parker, W. D. (2000). A hierarchical structural analysis of perfectionism and its relation to othe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4), 511–521.

28(5), 837-852.

Weiss, E. M., & Weiss, S. G. (1999). *Beginning teacher induction*, Washington, DC: ERIC Clearinghouse on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Williams, P. G., & Wiebe, D. J. (2000).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assessed health: Gender, neuroticism and physical symptom repor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5), 823-835.

Zhang, Y., Gan, Y., & Cham, H. (2007).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and engagement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6), 1529-1540.

* 논문접수 201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19년 6월 7일 / 게재승인 2019년 6월 19일

* 이수연: Miriam College에서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E-mail: sooyeon11@skku.edu

* 이정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jungyoon@sungshin.ac.kr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eaters'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Personal Standar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Lee, Sooyeon**

Lee, Jungy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personal standar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among repeaters. The participants were 329 repeaters in Seoul and Kyunggi private or boarding educational institute. Each participants received a package of the instruments: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Scale, Personal Standard Perfectionism Scal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Scale, Korea Academic Burnout Inventory, and Scale of Academic Stress as an extraneous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repeaters'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had not only direct influence but also indirect influence on academic burnout by mediating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This study was confirmed mediating effects of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 between repeaters'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However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is proved as a suppression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standard perfectionism and academic burnout. As a result, the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minimize effect of personal standard perfectionism on academic burnout. This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identifying the process by which pathways influence the repeaters' academic burnout according to types of perfectionism.

Key words: Repeaters, Evaluative concern perfectionism, Personal standard perfectionism, Academic burnout,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 This manuscript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First author, Dep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Psychology, Sungshin Women's University